

# 구례 섬진강 광평 수중보 존치·철거 논란 재점화

환경단체 물 오염원 제거 신청  
구례군 “2007년 용역 결과 존치”  
일부 주민 “철거시 피해 더 클 것”



환경단체 등이 최근 보 철거를 요구하는 물 분쟁 조정신청서를 내면서 섬진강 광평 수중보 철거 및 존치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광평 수중보 전경.

30년이 되는 구례 섬진강 광평 수중보(시설명 사도 낙차공)의 철거·존치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환경단체 등이 물 분쟁 조정신청서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민들은 철거시 피해가 더 클 것이라며 신중론을 펴고 있어 조정결과가 주목된다.

24일 ‘섬진강을 생명의강으로 주민네트워크 준비모임’(국립공원유지하는시민모임, 지구를지키는작은발걸음 등·이하 주민네트워크)은 섬진강에 댐과 보가 설치된 이후 벌어진 환경 파괴와 재난, 종 다양성 손실, 유역 간 물 분쟁 등을 우려해 최근 이를 시정해 달라는 조정 신청을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내고 처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물관리기본법(2018년 6월 12일 제정)에 따라 중앙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유역에는 4개의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두고 물분쟁조정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할하고 있다.

섬진강 광평 수중보는 1993년 구례군이 마산면 광평리 섬진강 분류를 가로 질러 설치한 길이 370m, 높이 1.3m, 폭 2m의 콘크리트로 만든 보로 어

류의 이동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연친화적 공법에 따라 어도를 같이 설치했다.

주민네트워크는 “조정 절차를 통해 재접 서식지와 모래톱을 보존하고 2020년과 같은 섬진강 하류 침수 피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생태계와 종 다양성 보호를 위해 섬진강 하류 물 유량이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광평 수중보 설치에 따라 물의 흐름이 정체돼 수질 오염 발생이 우려된다”면서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구례 주민들의 의

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해 섬진강을 생명의 강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첫 단추로 광평 수중보를 철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구례군은 “15년전인 2007년 철거를 위한 용역 연구를 한 결과 존치 쪽으로 결론이 나와 현재까지 보를 유지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것처럼 문제가 있다면 언제라도 협의를 거쳐 하천정비계획에 반영해 개선 방향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구례군은 또 지난 2007년 중앙대학교 산학협력

단 장태규 박사 팀에게 ‘섬진강 수중보 철거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 한 결과 장태규보다 단점이 많아 존치 쪽으로 결론을 냈었다고 밝혔다.

용역 결과 장태규 박사팀은 “철거시 수질개선과 홍수소통능력, 하천생태통로 확보 등의 장점은 있으나, 반대로 하상세굴과 제방침식, 상수도 취수 시설 용수수급 불가능, 다리교각 피해, 서식처 등 지류와의 단차, 농업용수 취수 어려움 등 단점이 더 많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의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구례읍 주민 A씨는 “수중보는 처음 설치할때부터 지금까지 수 십년간 구례의 계곡 같은 존재”라며 “이번 기회에 여러 계층의 의견을 모아 수중보로 인한 소모적인 논란과 지역 갈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마무리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중보 설치 당시 구례군청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박영근 구례군의회 전 의장은 “당시 구례 광양 하동 등 섬진강 수계 지방자치단체들이 섬진강에서 모래 자갈 등 많은 골재를 채취하면서 피해가 우려돼 환경 토목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를 설치했다”며 “특히 보에 설치된 어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도입된 자연친화적 공법으로 철거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경 오염 등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용역팀을 꾸려 면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철거보다는 개선 방향을 찾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글·사진=구례 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 만다비 체육센터·탁구장 등 고흥군 체육시설 확충 박차

고흥군이 체육시설 인프라를 대폭 확대해 건강하고 흥망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흥군은 최근 만다비(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동강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 고흥 전용 탁구장 건립, 김태영체육관 인조잔디 교체 사업 등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

고흥군에 설치된 체육시설은 거금아구장, 박지성공설운동장, 팔영체육관, 국민체육센터, 김태영체육관 등 9곳과 각 읍·면·계이트볼장 27곳이 있다.

군은 민선 7기에 들어 도하면 당오리에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 인조 잔디 구장과 관리실을 갖춘 도화 그라운드 골프장을 조성했으며 고흥읍 행정리에 20억원을 투입해 총 6면 규모로 인조잔디 구장(전천후 2면, 옥외경기장 4면)을 갖춘 계이트볼 전용구장을 조성하는 등 체육 인프라를 대폭 구축했다.

또 지성 공설운동장 구조물 보강, 건물 내부 리모델링, 도색 및 광장 포장에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낡은 환경을 새로이 정비하고 안전시설물 등을 점검했다.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5면과 도양 테니스장 4면에 사업비 19억원을 투입해 하드코트로 전면 교체 하는 등 총 226건의 신축 및 개보수 작업도 마쳤다. /고흥=주낙준 기자 gjuu@kwangju.co.kr

## 곡성군 청년 창업가

### 리모델링·장비 구입

### 최대 2000만원 지원

곡성군이 청년 창업자에게 장비 구입 등 필요 자금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곡성군은 지역 청년 창업자들의 안전한 정착을 위한 자금을 최대 2000만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분야는 사업장 내부 리모델링, 장비 구입 등이며 신청일 기준 곡성군에 주소를 둔 만 15세 이상부터 만 49세 이하 예비 창업자가 대상이다.

지원 대상자는 총 3명이며 대상으로 선정되면 총사업비의 70%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기계 및 장비 구입비는 사업비의 50% 이내로 지원된다.

유의할 점은 토지 매입 자금이나 임대료, 전세 자금, 인건비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이 가능한 비용도 지원불가 항목이며 사업을 최소 3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또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곡성군은 1차 서류 심사와 2차 발표 심사를 거쳐 다음달 최종 지원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원금 신청 서류는 곡성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을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며 “다음달 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kwangju.co.kr

## 순천시 지리정보 안내, 쉽고 편리해진다

### 전국 최초 반응형 웹 구축

### 24일부터 서비스 시범운영

순천시의 지리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생활 지리정보시스템’이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순천시는 기존 PC 기반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반응형 웹으로 생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모바일 등 다양한 기기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또 GPS(위치정보조회) 기능을 추가해 현재 위치 주변의 공중화장실, 민방위 대피 시설, 무더위쉼터,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생활 시설과 용도지역 지구도, 국공유지 정보를 탑재해 공공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해 박람회장 및 지역 내 개방정원에 대한 콘텐츠를 휴대하기 편한 전자지도로도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던 항공사진,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의 정보도 동일하게 제공한다.

시는 전국 최초로 지도기반 반응형 웹을 구



전국 최초 지도기반 반응형 웹인 모바일용 순천생활지리정보 안내 화면. <순천시 제공>

축함에 따라 시범운영을 통해 보완사항 등을 개선해 2월 중 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생활 지리정보시스템’은 인터넷 검색창에 ‘순천시 생활 지리정보시스템’을 검색하면 이용할 수 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 여수시, 지난해 관광객 977만명...12% 늘어

### 코로나 장기화에도 꾸준히 증가

### 투숙률도 전년보다 6.3%p 상승

여수시는 지난해 방문 관광객이 977만3695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년 872만명 보다 12%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도 관광객들이 꾸준히 여수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 1354만명에 비해서는 27.8% 감소한 수치다.

관광객 추이를 보면 지난해 4월 이후 매일 70만명 이상이 꾸준히 방문했고, 성수기인 8월과 10월에는 100만명 이상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특

히 9월과 11월에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근접한 수치를 보였다.

체류관광객도 증가 추세다. 주요 숙박시설 투숙률은 52.4%로, 지난 2020년 46.1%에 비해 6.3%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수시는 관광객 증가의 요인으로 한국관광공사 주관 2021년 여름과 가을 ‘한심관광지 25선’에 장도와 하화도가 선정되는 등 시민과 함께 만든 안전한 관광도시 이미지와 백신 접종률 증가, 워드코로나 시행에 따른 여행심리 회복 등을 꼽았다.

무엇보다 지난해 두 차례의 긴급이동 멈춤 등 시민들의 참여로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여수가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관광객의 발길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 보성군, 식량작물 정부보급종 차액 지원

보성군이 식량작물 품질 향상과 종자 갱신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2년 정부보급종(벼, 밀, 콩) 차액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도비를 확보해 벼 1만원(20kg), 밀 7000원(20kg), 콩 4000원(20kg)으로 작목 별 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정부보급종을 신청·공급받은 농

업인이다. 우선공급분 종자 이용 육묘사업자와 밀 우선공급분으로 신청한 종자는 제외된다.

보급종 신청 기간은 벼의 경우 오는 28일까지이며 콩은 2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밀은 7월 21일부터 9월 14일까지다. 신청은 각 읍·면 농민상담소에서 받으며 공급은 각 지역농협에서 한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

